

# 정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 권한대행 "사고원인 철저 조사" 대통령실 "24시간 비상대응태세" 전남도, 공항인근 임시안치소 설치 전남 64곳·광주 12곳 안치소 확보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서는 등 비상 대응 태세를 가동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오늘 오전 9시3분경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탈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무안 망운문화복지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공항 항공기 폭발사고와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재난지역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러진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관리소에 오전 9시50분쯤 도착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최 대행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1차장으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중대본을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 동원, 신속한 대응, 피해 수습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열어 사고 원인 규명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을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회의 결과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이날 김영록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활동 지원과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안공항과 사상자들이 이송된 목포한국병원 등에 직원을 파견하고, 무안공항 인근에는 임시안치소를 설치했다. 안치소에는 오후 3시 기준 총 94명의 시신이 안치됐다.

전남도는 추가 안치를 위해 전남 64곳, 광주 12곳 등 안치장소 76곳도 별도 확보했으며, 또 유가족 응급지원을 위해 응급 구호세트 400개, 담요 1500개, 핫팩 1000개, 식사 800인분도 준비했다.

이와 더불어 유가족 전담 공무원 360명을 배치해 1대 2 매칭을 지원하고 무안공항과 무안 망운초등학교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다.

광주수도 이날 오전 시청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1차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한 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관계실국장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시장은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 및 탑승자 명단 파악, 사상자 병원 이송 준비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적극나설 것을 지시했다.

지역 국회의원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신정훈, 이개호, 문근주, 권향엽,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 또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광주시,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 설치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단' 운영 내년 1월4일까지 7일간 애도기간 연말연시 행사 취소·간소화 하기로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지역민 81명이 포함됨에 따라 5·18민주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7일동안 애도한다.

광주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하고, 이날(12월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일주일 간을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또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애도기간에는 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수습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 운영한다. 또 유가족 등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으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열린 '제야의 종 타종식'은 취소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잠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사고현장은 너무나 처참했다"면서 "참사 여객기 탑승자 181명 중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설치해 유가족을 돕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한 뒤 오전 10시30분 119종합상황실에서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오전 11시 '제1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찾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오후 1시30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제2차 지대본회의'를, 오후 4시에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3차 지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참사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는 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권범 기자

## 제주항공 "책임 통감...사고 지원 총력 다할 것"

"탑승객·유가족에 애도·사과"

제주항공이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고의 수습 및 유가족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질의 응답을 통해 "사고 이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본사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해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



김이배(가운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2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와 관련 브리핑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제주항공을 자회사로 보유한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도 이날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K홀딩스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제주항공의 사고 대책반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AK홀딩스는 제주항공의 지분 50.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뉴시스

##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비상대응체계 가동

교직원·학생 등 희생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광주·전남교육청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29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남교육청 교직원 5명과 전남지역 학생 3명, 광주지역 학생 4명이 제주항공 사고기 탑승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 5명 중 2명은 일선 교육지원청 소속, 1명은 지역 모 고교 소속, 2명은 본

청 소속으로 확인됐다. 학생 3명 중 2명은 전남 모 고등학교, 1명은 전남 모 초등학교 학생이었다.

광주지역 학생 4명 중 3명은 중학생, 1명은 초등학생으로 파악됐다.

시도교육청은 피해 인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본부 등지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헌기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